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업 지원방안(I)

본고는 북한의 축산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사전에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농촌경제 '97여름호에 농촌경제연구원의 신승열, 김운근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의 축산물 수급현황과 대북 축산물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췌· 게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1. 서언

최근의 국제환경은 구소련과 동구국가들의 붕괴, 동서독의 통일, 그리고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 등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무너지고 탈냉전적 동서화합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이념과 체제고수의 경직된 입장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1991년 UN동시 가입과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교환으로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연구는 정치환경 내지는 군사적 평가에 치중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각 부문에서의 통일에 대한 충격과 통일비용에 대한 막대한 부담은 우리에게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응집된 힘을 통일조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 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분야이든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식량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이상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북한 내부의 사정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 관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비한 각 분야의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북한의 농업분야 중에서도 축산부문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축산물의 생산·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북한의 축산물 수급 전망을 살펴보았다. 또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협력 가능한 축산부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여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비한 축산 부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코자 한다. 그런데 북한은 1963년 이래 각종 통계를 거의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발표하는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대외 선전용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연구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농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귀순자들을 면담하여 청취·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단편적이거나 북한 농업부문의 현상과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북한의 축산정책

1) 북한의 축산정책 방향

북한은 축산업의 발전이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축산업은 「①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식량을 절약한다. ② 축산업의 발전은 농산물을 비롯한 농업내부 부분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③ 축산업의 발전은 산간지대 농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④ 축산업은 경공업의 원료 원천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축산정책 방향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영축산과 협동농장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개인 부업 축산을 조화시켜 발전시킨다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영농목장들을 개편하여 전문화하고 지역의 자연경제적 조건에 맞게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풀이 많은 산간지대에는 소, 양을 비롯한 초식가축을 주로 사육하면서 돼지같은 잡식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고, 평야지대에는 돼지를 비롯한 잡식가축을 주로 사육하고 초식가축을 병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배치는 사료 이용가능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전부문에서 “자력갱생”이라고 하여 자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축산부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위하여 정책의 대부분이 생산량 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축산물 생산장려정책

전후 1960년대 이전의 북한 축산은 소규모 부업적 형태로 축산물의 이용에 앞서 구비조달, 축력의 이용이 주된 목적이었던 유축농업의 단계를 거쳐 토지개혁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국영농목장 협동농장 체제로 전환되어 각 농장에서 농업과 축산을 병행하는 농업협동화정책을 세웠다.

또한 축산장려를 위해 1961년부터 부업축산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개인농가에 대해서도 가축사육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 개인 농가의 축산은 전업보다는 부업형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였으며,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로 구분하여 장려사육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부업 축산은 1963년 이후 국영축산 확장과 병행하여 계속 권장되었다. 평야지대의 농가는 각호당 돼지 2마리, 토끼 15마리, 닭 10수 이상을 장려하고, 산간지대 농가는 각호당 평야지대와 같은 수의 돼지, 닭을 사육토록 하고, 토끼는 30마리 이상을 사육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축산도 제1차 7개년계획(1961~67년)에 전환기를 맞아 1960년 국영농목장 작업반들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축산물 생산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1961년 3월에는 국영농목장의 신설, 확장에 주력할 것을 채택하였고, 1963년 9월에는 당중앙위 제4기 7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영농목장의 농산과 축산을 분리하여 전문화하는 한편 도시와 공업 중심지에 육류 및 탄생산 기지를 강화하고 가축별 종축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중앙농업위원회에 가축총국과 가금총국을 신설(1965)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영목장, 종축장 및 사료공장 등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영 및 협동농장 중심으로 현대화된 설비를 제공하고, 우수한 종축을 생산, 분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도도 단계별로 실시했다.

1980년 이후 도단위, 전국 지역규모의 축산부문 관련회의 또는 열성자대회를 개최하여 축산물 생산증대와 관련한 경영상의 제반 문제점 및 과업을 제기하는 동시에 축산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힘썼다.

또 지역간, 농장작업반간의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축산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농근맹중앙위원회에서 축산농정과 작업반

에 모범칭호 수여 및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모범축산군 구역' 칭호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나. 의무사육제도

축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행정단위, 협동농장 및 작업반, 각 농가 등에 일정수의 가축사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5차 당대회(1971년 11월)에서 결의함으로써 가축사육이 장려제도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었다.

축정의 의무사육제도가 확립되면서 축산물 생산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육류 4만톤,란류 30억개, 우유 6만톤, 양털 2,500톤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974년 연산 1만톤 능력의 평양 돼지 공장을 비롯하여 5,000톤(사리원, 강서, 소원)과 2,000톤 능력(송림, 유원, 해주)의 돼지공장 등 주요 도시와 노동지구에 대규모의 돼지공장 건설과 함께 이미 마련된 가금기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오리공장, 상원 젖소공장, 평안북도에 24개의 오리종금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청진, 홍성 닭공장과 광포, 용저 오리공장을 확장하고, 진천, 신의주, 청진, 송원에 배합사료공장과 현대적인 돼지공장에 사료분쇄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각 협동농장에는 작업반당 연간 고기 2~3톤, 호당 100kg 이상의 육류생산 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 기지를 강화하고 공동축산장을 증설하는 한편, 리(里)와 부락단위로 축산작업반, 축산분조를 조직하여 대중적 운동으로 의무사육을 강화하였다.

다. 사료공급정책

축산물 생산과 관련하여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사료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비료, 동과, 호박 등 비곡물류의 사료용 작물 재배 확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경작용 유휴지 활용강화, 방목지 및 풀산 등 자연먹이기지 조성을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인 1987년 이후에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축산용 새땅찾기 사업, 10만정보의 비료발 조성 및 1정보당 200여톤의 사료작물 생산목표 제시 등이다.

2) 축산행정 및 경영체제

가. 축산의 행정조직체제

북한의 농촌관리 및 농업경영지도체계에 의하면 국무원 농업위원회 산하 협동농장지도총국, 국영농장관리총국, 과수총국, 양어총국, 가금총국 및 축산총국이 있다. 1965년 농업위원회 개편시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총국과 가금류 중심의 가금총국으로 분류한 것이다.

축산총국에서는 종축장 중심으로 기술행정을, 가금총국에서는 종금장 중심으로 전문화된 기술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단위와 도단위에는 대규모 직영목장, 종축장, 사료공장, 수의방역소가 설치되어 있어 우량가축의 생산과 공급, 사양관리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 지도를 담당한다.

각 군에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두고 공동축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축별로 전문화된 종축작업반을 편성하여 세분화된 경영을 하고 있다. 군경영위원회에는 축산과가 있고 과장, 기사장, 3~4명의 지도원이 있어 축산행정 및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최하층 행정단위인 리에서는 협동농장관리위

원회를 두고 여기에는 소규모 축산작업반이 있으며, 작업반 밑에 축산분조를 조직하여 축산 부문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부업 축산으로 돼지, 토끼, 닭, 오리 등 가축별로 분조를 나누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축산전문작업반과 분조에 소속된다.

나. 축산의 연구조직체제

축산관련 연구체계를 살펴보면 농업과학원 산하에 축산연구소, 가축연구소, 사료학연구소, 가금연구소, 수의학연구소 등 5개 연구소와 축산시험장, 증화종축장 및 농업관련 중심으로 12개 농업대학에 약 3만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영목장과 종축목장에서는 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및 우량가축의 증식과 공급을 담당하며, 전문연구기관과 대학에서는 가축육종과 번식, 사양관리, 축산가공, 수의, 방역, 축산경영 등의 분야를 연구한다. 아울러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 중심으로 현대화된 설비를 제공하고, 우수한 종축을 생산, 분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도를 단계별로 실시했다.

이외에 종축체계의 확립 및 인공수정 등을 통한 가축번식장려, 축산시설과 사료가공시설의 개량, 가축관리의 과학화 및 수의방역사업 등을 중요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축산수의 분양의 연구논문들은 「과학원통보」에 학술논문 형식으로 게재되며, 기술지도 잡지로는 「수의축산」이 매월 발간되고 있으나, 1980~1990년까지 최근 10년간 불과 10편 미만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따름이다.

그나마 주제, 체제, 내용, 이론전개 및 증명자료 제시 등도 미비하여, 최근 북한의 축산연구가 지지부진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 축산의 생산·경영조직체계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를 위하여 축산생산체계를 국영축산, 공동축산 및 농민부업축산으로 1963년 9월에 중앙위원회 제4기 7차전원회의에서 분리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국영축산

국영축산은 중앙농업위원회 또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업소인 국영목장과 도영목장으로 나누어진다. 1960년 6월 국영축산장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생산을 자극하고, 1963년 9월 중앙위원회 제4기 7차위원회에서는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각 축산장의 농산과 축산을 분리하여 전문화시켰다. 또 1965년부터는 농업위원회내 축산총국과 가금총국을 분리 설치하여 각 축산장에 대한 전문화된 기술행정과 지도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까지 이 체제로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국영목장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970년대의 자료에 의하면 중앙농업위원회가 직접 관할하는 31개의 국가농목장과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162개의 도영농목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돼지목장, 닭목장, 소목장 등은 협동농장이나 농업위원회의 통제에서 정무원산하의 인민무력부 등의 조직으로 재편되기도 한다.

이들 농목장은 주로 특작물 생산, 과수, 목축 등의 상품화 가능 농작물을 경작 또는 사육하는 한편,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수확 우량 종자

와 우량종축 및 묘목 등을 각 협동농장에 보급한다.

따라서 이들 국영농목장은 선진적인 기술과 인력배치로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국영농장에 소속된 경지면적은 총경지면적의 12%에 불과하나 생산량은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협동농장보다 생산성이 높은 시범농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공동축산

협동농장에 축산작업반을 1959년 6월에 설치하고,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축산을 공동축산이라 한다. 1963년 9월에는 축산작업반에 축산분조를 두고 가축별로(소, 비육돈, 닭 등) 사육형태를 전문화하도록 했다.

축산작업반은 규모에 따라 대규모 작업반과 소규모 혼성작업반으로 조직하고 대규모 전문작업반에는 각각 상설분조와 임시분조를 둔다. 전국의 대부분 협동농장에 이같은 작업반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숫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 협동농장 중에서 일부 국영농장으로 변화되고 있거나 군부대의 관할하에 두어 군의 식량보급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다) 농민부업축산

국영농목장과 협동농장의 축산만 강조하여 오다가 1961년부터는 부업축산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장려사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후 1971년 이후부터는 농가, 인민반, 학교, 각종 사회단체에 가축사육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점증하는 축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도, 군, 리 등 행정단위와 협동농장, 사로청, 작업반 및 각 농장에 일정 수의 가축사육을 의무화시켰던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는 협동농장에서만 농장당 50마리씩 사육하도록 했으며, 돼지는 농가당 두 마리씩 기르도록 했다. 그외 닭, 오리, 토끼, 양, 염소 등의 주 가축으로서 각 행정단위와 협동농장, 농가 등에서 적게는 한 마리, 많게는 수백마리씩 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 없고, 반드시 국가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닭, 토끼, 오리, 염소, 개 등 소가축은 농민시장에서 임의로 매매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세가지 경영형태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1. 각 단위별 가축 의무사육 두수 (단위 : 두,수)

구분	소	돼지	닭	오리	토끼	양	염소
군					4~6만		
리					1만	200	
협동농장	50						
작업반			100~150				
농가		2	5	20	30	1	1
양정사업소			1천~2천				
정미소			200~300				
탈곡장			100				
학교					2,000		
시로청단체					50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농업현황」, 1990.12

표2. 축산의 경영형태 및 세부사항

경영형태	세부내용
국영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농업위원회의 축산총국과 가금총국에서 직접 통제 국영농목장의 농산과 축산을 분리하여 전문화
공동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축작업반과 농산작업반에 축산분조 운영 종축작업반 → 역우, 비육돈, 가금 사육 전문화 대규모 전문작업반 → 상설분조, 임시분조 소규모 혼성작업반
농민부업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가에 돼지, 토끼, 오리, 닭 사육 의무화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농업현황」, 1990.12

부업축산으로 사육된 것 중 협동농장의 소, 농가의 돼지 등 중·대가축은 임의로 처분할

3. 축산물 수급현황과 전망

1) 생산·소비현황

가. 축종별 지역 분포

북한의 축종별 생산현황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협동농장의 입지와 규모에 따라 축산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축종별 구성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 있다. 또한 사료공급에 따른 지역여건에 따라 축종을 배치하고 있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의 경우는 평안북도 및 평안남도 황해북도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다. 평야지대 및 중간지대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주로 역우로서 사용되고 있다. 산간내륙지역의 경우 농지면적당 사육두수는 평야지대나 중간지대보다 높아 주로 산야초에 의해 사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젖소의 경우는 일부 국영농장에서 사육되고, 군협동농장에서의 사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젖소는 큰 도시 주변과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 공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많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는 북한 축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등 주로

서부지역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이처럼 북부와 산간지대의 시·군들보다 주민밀도가 높고 농업생산이 높은 지역과 평야지대 및 중간 산간지대의 시·군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 것은 잡식인 돼지의 먹이로 공업부산물과 생활폐기물(가공식품부산물과 음식찌꺼기인 것으로 판단됨)을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3. 북한의 축종별 주요생산지역

지역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평양시		시주변			강남군
평양남도	평원군 개천군 순천시 성천군	개천군 덕천시	순천시 덕천시	평성시 숙천군 개천군 성천군 순천시 덕천시	개천군 순천시
평양북도	녕변군 운산군 태천군		신의주시 정주군	정주군	
자강도	배천군 연안군 청단군				
황해남도			신천군 안악군 배천군 연암군 청단군	해주시 안악군 신천군 배천군 연암군 청단군	룡연군
황해북도	황주군	사리원시 중화군		송림시 황주군 사리원시	사리원시
강원도					
함경남도	단천시 금야군	금야군	함흥시 금야군 단천시	함주군 정평군 금야군 단천시 함흥시	정평군
함경북도	은덕군 길주군	김책시 길주군 화령군 셋별군	청진시	청진시	선봉군

자료 : 귀순 축산전문가 면담 조사자료 정리

가금류의 경우는 닭, 오리, 메추리, 게사니(거위) 등이 사육되고 있으며, 그 중 닭의 사육비율이 제일 높으며, 사육분포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형 농업생산지역과 평야지대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오리는 특히 강남군, 개천군, 순천시, 룡연군, 사리원시, 정평군, 선봉군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정평군, 룡연군과 선봉군에는 대단위 오리 전문생산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4. FAO에 따른 북한의 가축사육두수

(단위 : 천두, 천수)

구분	1989~91	1993	1995
소	1,293	1,300	1,350
젖소	37	38	40
돼지	3,215	3,300	3,350
닭	21,000	22,000	23,000
양	385	390	395
염소	295	300	305

자료 : FAO Production yearbook Vol 49, 1995

나. 가축사육두수

유엔의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간되는 자료에 의한 북한 가축사육두수 추정치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북한의 축종별 사육두수는 1990년 이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FAO회원국인 북한이 사무국에 보고한 수치이며, 대외선전용으로 자료의 신빙성은 낮다.

북한의 연도별 가축사육두수를 표5에 의해 살펴보면, 1991년도 기준으로 소 950천두(유우

8.9천두 포함), 돼지 2,000천두, 가금 2천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사육두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의 경우 54.1%, 돼지 39.6%, 가금 26.3%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신빙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왜냐하면, FAO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도 소의 사육두수의 경우 약 340천두의 차이가 있으며, 돼지의 경우의 1백만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젖소의 경우는 FAO자료가 4배 이상 사육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낙농은 축산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며 국내사료공장이 여의치 못할 뿐만 아니라 외화부족으로 사료의 수입도 어려운 실정에서 낙농분야는 일반분야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으리라 추측된다. 다만 국영 목장에서 관리하는 목장의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양시 인근의 중화군 유우목장의 예를 들어보면 90ha의 면적에 총 3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을 일본에서 수입하였다고 한다.

표5. 북한의 가축사육두수 (단위 : 천두, 천수)

구분	1953	1960	1964	1975	1979	1982	1984	1991
소	506 (0.6)	672 (48)	703 (-)	810 (-)	650~720 (-)	680~730 (-)	1,000 (-)	950 (8.9)
돼지	544	1,123	1,441	1,570	2,400~2,800	2,750	2,800	2,000
가금	1,862	4,535	6,108	-	-	-	-	-
양	20.7	105	157	-	310~360	375	-	300
염소	4.4	79	186	-	240~260	250~265	600	250

주 : ()안은 유우 두수임.

자료 : 1) 1975년까지는 연도별 조선중앙연감

2) 1979년부터는 TriguBenko, The Problem of Animal Production Development in North Korea, 통일에 대비한 북방권 축산기술과 그 대응전략, 국제세미나자료집, 강원대학교, 1993

직원수는 174명으로 많은 편이며, Holstein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유우사육두수는 1991년 8.9천두로 남한의 496천두의 1.7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 조사에 의하면 남한의 연간 1두당 착유량이 5,846kg인데 비하여 2,429kg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우의 경우는 방목지 및 경작지의 부족을 이유로 유우사육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그대신 콩농사를 잘하여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공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어 낙농업의 낙후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다. 축산물 생산현황

북한의 축산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기준 육류 200천톤으로 남한의 913천톤에 비하여 약 21.9%이며, 우유는 50천톤으로 남한의 1,741천톤의 약 2.9%에 불과한 수준이다.

북한의 목초지와 경작지의 부족으로 사료용 곡물의 생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육도 부수적일 수밖에 없다. 유우보다 육우를, 육우보다 돼지에, 돼지보다 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가축은 국영농장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토끼, 개는 개인소유로 1호당 20~30평의 텃밭 안에서 사육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돈육, 계란, 계육이 중심이고 우육은 역우로서 이용한 후 노폐우에서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육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현재 국내생산 200천톤과 수입물량 7.7천톤을 합한 207.7천톤의 공급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91년 기준 북한인구 21,814천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연간 약 9.5kg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수준은 1991년 남한

의 육류소비량 25.4kg의 37%에 해당하며 남한의 1960년대 1인당 육류소비량 7.0kg과 엇비슷하다.

우유의 경우는 농산물 수출입항목 어디에서도 낙농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생산량에 비해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이다. 생산된 우유는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식품공장 또는 일용품공장에서 가공처리하여 과자류, 당과류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뿐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6. 북한의 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분	1960	1970	1979	1980	1985	1990	1991
육류	75	170	100~120	178	181	195	200
우유	10.6	16	55	57	51	50	50
계란	113	700	2,100~2,800	2,500	-	145,000	250,000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농업현황」, 1990.12

표7. 북한의 육류공급현황 (단위 : 톤)

연도	생산량 ¹⁾	수입량 ²⁾	공급량
1960	75,000	-	75,000
1970	170,000	-	170,000
1980	178,000	10	178,000
1984	180,000	856	180,856
1990	195,000	3,620	198,620
1991	200,000	7,693	207,693

자료 : 1) Trigubenko, Food Supply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 자료집, D78, KREI, 1992.

2) Murooka Tetsuo, 북한의 농산물 무역현황과 전망, 국제세미나 자료집 D78, KREI 1992.

최근에는 평양 어린이 식품공장내에 평양 경공업대학 연구팀과 이 공장 기술진이 분유생산공정을 개발하여 젓먹이 어린이들에게 분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현재 시험생산을 준비 중에 있어 앞으로 분유 생산량을 수배로 증가시킬 계획아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라. 축산물 가공현황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의 육류가공은 닭, 오리 등의 가공류가 주축을 이루며 소·돼지 등은 부차적이다. 제1차 7개년 계획기간중 약 170여개의 소규모 육류가공 시설이 마련되어 육류가공 생산실적은 1960년 900톤에서 1968년 2,000톤으로 성장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육류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성육류가공공장을 중심으로 함흥, 정주, 신의주, 개성, 창성, 전천 등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35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유가공품은 창성, 전천식료공장 및 5호 종합농장에서 버터, 치즈, 연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972년 일본으로부터 연산 40만톤 규모의 연유가공설비를 비롯한 버터제조설비, 냉동장비 및 건조장비 등을 도입했다.

마. 축산물현황

축산물의 소비에 대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나타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표7과 표9의 축산물 공급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북한의 축산물 소비는 공급량에 맞추어 배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축산물의 교역

량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비량은 FAO의 축산물 생산량 자료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하여 볼 경우 1995년도의 북한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11.1kg에 이르며, 이중 돼지고기의 소비가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남한은 1995년 육류소비량이 27.4kg으로 북한은 남한의 약 40%밖에 소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의 1979년도 소비량 11.4kg과 같은 수준이다.

쇠고기의 경우도 1인당 2kg으로 1995년도 남한의 쇠고기 소비량 6.7kg에 비해 매우 낮게 소비되고 있다.

표8. 북한의 주요 육류가공공장 현황

공 장 명	생산제품	주요 시설
용성육류가공공장	통조림 1만톤, 선육 150톤/일	냉동실, 가축도살장
창성식료공장	육류 및 우유가공품	
함흥육류가공공장	각종 통조림, 육만두, 순대	육만두성형기
전천식료공장	육류 및 우유가공품	
강서부식물가공공장	육만두, 고기고추장	도살장, 어류절임탱크

자료 : 『북한의 산업정책 및 시설현황』, 통일원, 1986

표9. 북한의 육류공급량 및 1인당 소비량

구 분	공급량(천톤)			1995년도 1인당소비량(kg) ¹⁾
	1989-91	1993	1995	
육류 총계	258	255	259	11.10
쇠 고 기	45	45	47	2.02
돼지고기	163	158	159	6.84
양 고 기	2	2	2	0.09
가 금 류	47	48	50	2.15
계 린	144	148	150	6.45
우 유	88	88	90	3.87

주 : 1) 1995년도 북한인구 : 23,261명
 자료 : FAO Yearbook Vol. 49, 1995.

북한주민의 축산물 소비는 원칙적으로 국가 배급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간부, 군인, 노동자, 농민의 신분에 따라 그 소비량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물 배급은 설, 국가경축일 등 명절에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돼지고기의 경우 연간 2.5kg~3.6kg 정도의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민보다는 노동자에게 많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의 경우 의무적으로 연간 가구당 2마리의 돼지를 생산하여 군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닭의 경우는 가구당 5마리를 사육하여 계란은 군대와 협동농장내의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하고 고기는 자가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쇠고기의 소비는 약 농가 30호당 1마리씩 역우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쇠고기의 소비는 거의 없다.

축산물은 배급제 이외에 국영상점이나 농민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영상점과 농민시장은 군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2~4개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

국영상점에서는 국정 소매가격으로 싸게 구입이 가능하나 축산물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농민시장은 암거래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영상점의 국정소매가격은 8원/kg(정육)이나, 농민시장의 암거래 가격은 160~180원/kg이므로 평균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60~80원인 일반 농민이나 노동자는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달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영상점의 개당 22전이 농민시장에서는 15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음호에 계속) **양계**